

1.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자연미의 양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자연스러움의 의미나 인공미를 보는 관점은 각각 다르다.

제시문 (가)는 적극적으로 자연미를 추구한다. 많은 문인화가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매화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행위는 인공미를 만들어내어 겉으로 보기에는 매화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나 이는 매화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 된다. 제시문 (가)의 화자는 이러한 세태를 비판하며 매화의 자연미의 회복을 약속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 인공미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자연미를 가장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시문 (가)와 달리 제시문 (나)와 (다)는 인공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에 따른 인간의 노력을 인정한다. 제시문 (나)에 나오는 무량수전은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건축물의 일부분 모두 균형을 이루고 있어 화려함은 아니지만 절제미를 느끼게 해준다. 또한, 대자연 속에 녹아들어가 송고미나 순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건축물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자연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건축물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공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제시문 (나)는 자연미와 인공미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는 인공적인 것이 자연스러움의 필수적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제시문에 비해 더 강력하게 인공미를 중요시한다. 르네상스 시대에 궁정 여인들에게는 송고미가 강조되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런 티도 안 내는 것이었다. 매우 자연스럽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우아하게 보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산된 연기였다. 따라서 제시문 (다)는 인위적 행위를 통해 자연미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는 주변 환경과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나)와 달리 실제 자신의 모습과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사이에서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또한 (나)에서는 풍수사상에 따라 자연미와 인공미의 조화 자체를 중요시 하는 반면 (다)는 사회적 시선을 위해 자연미와 인공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2. 제시문 (라)에서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물방울 다이아몬드의 그림이 나와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석으로서 매우 고가에다가 희소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은 다이아몬드와는 관련이 있지만 매우 불품없어 보인다. 물론, 이러한 원석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원석이 있어야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아직 드러내지 않은 사람은 원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에서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가는 정제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원석이 있어야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원석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원석 그 자체는 그저 돌맹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원석의 정제과정을 통해서 그것의 가치를 찾게 되었고 그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따라서 나는 인위적 행위를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장 중시하는 제시문 (가)의 주장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없고 다 각각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또한 그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숨겨진 진가들이 존재한다. 만약 그 숨겨진 목적을 아무도 발견 못하고 설사 발견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 참된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더 가치 있어지고 사회에 좀 더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자연스러움의 파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시문 (가)에 나온 것처럼 개인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점으로 인해 인위적 행위를 부정한다는 것은 너무 큰 손실을 만들어 낸다. 만약 인간이 무엇인가를 발굴하고 변형해가면서 연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원시시대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의 가치를 찾고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해가면서 지구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